



한라포커스 민선 7기 제주도정 출범 3주년 성과와 과제 (3) 미래성장 동력 산업

제주 미래 먹거리 사업 소리만 요란?

용암해수 활용 융복합단지 해양에너지 상용화 제자리 당초 2000억 조성 목표... 모태펀드 조성액 310억 그쳐 그라스 마을 기반 통한 BT 산업 세계화 인프라도 중단

제주도정이 제주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성장 동력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으나 '용암해수'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은 2018년 인제 및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제주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제주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ICT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제주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ICT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주항 물류기지 설립을 비롯한 대부분 사업이 중단되거나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제주4차 산업혁명' 모태펀드 조성 금액은 31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중 도내 기업 투자액은 8개사·55억원에 머물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1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던 제주 그라스 마을 기반 조성사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그라스 마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제주 브랜드만 갖고 BT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외부 인력(화학품·향료 전문) 유치 및 기업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제품의 질 향상과 유통채널

다변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국비사업 공모 및 재원 확보 후 그라스 마을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항 물류기지 설립도 중단됐다. 제주도는 당초 2021년 제주신항 기본계획에 제주항 첨단 ICT기반의 물류기지 설립 계획을 반영하고 2022년 기본계획 확정 및 예산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물류기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컨테이너 화물 해체 작업이 제주항 부두에서 시행되면서 부두 혼잡 및 물류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고 제주도 인구 급증 및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창고 부족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용암해수 활용 제주항 융복합단지 해양에너지 상용화 역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용암해수 단지 내 입주한 기업이 폐업하는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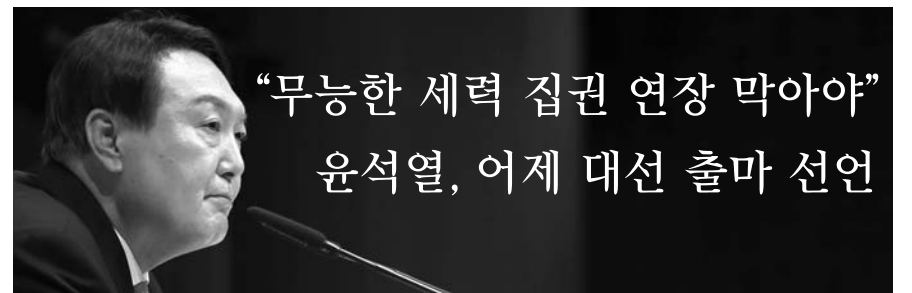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화장품과 불룩제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했으나 실패했으며,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만 유지해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총 4개로 기존 충전기의 용량을 두 배로 늘려 충전기 성능을 높이는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이동식 충전이 가능한 이동형 충전기 실증 ▷충전기를 공유하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전기차의 성능상태를 이동형 점검차량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실증'이다. 이 실증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충전과 전기차 이용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민선 7기 제주도정이 계획했던 미래성장 동력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도민들의 미래 먹거리 희망찾기도 사라지고 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무능한 세력 집권 연장 막아야" 윤석열, 어제 대선 출마 선언

야권의 강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사진·연합뉴스)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발탁된 윤 전 총장의 이날 대선 출마 일성은 "정권 교체"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 서초구 매현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면서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로 "4년전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국정을 내 편 내 편으로 그리고 상식과 인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

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치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국민들이 먹고 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직 사퇴 후 대선에 출마한 것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 사퇴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사퇴의 불가피성을 이해해주시고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다"며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이상 집권을 연장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인구 이동 잦은 제주... 감염 예측 어려워"

어제 제50회 제주미래포럼 3분기 변이 유입 가능성도

올해 3분기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 달성으로 해외 출·입국이 활성화될 경우 제주지역 변이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제주도와 제주연구원 공동 주최·주관으로 열린 제50회 제주미래포럼에선 '코로나19 이후, 제주 방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래 백신접종에 따른 코로나19 유행 예측, 제주 관광과 방역의 조화, 제주도 방역 현황과 성과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정재훈 가천대학교 길병원 인공지능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백신접종에 따른 제주도 코로나19 유행 예측'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제주 지역 코로나19 유행 추이에 대해 ▷비교적 인구 수가 적음에도 한 번의 큰 전파 사례에 큰 영향을 받는 점



29일 '코로나19 이후, 제주 방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50회 제주미래포럼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국내외의 관광객 등 인구 유입과 이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꼽았다.

정 센터장은 "제주의 경우 인구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형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외부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인구 수만 가정하면 현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

이 아니다"라며 "제주도가 다른 도시 급으로 치면, 300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 급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제주지역 코로나19 감염 대상자는 제주도민, 국내 관광객, 해외 입국자 모두 합쳐서 생각해야 한다"며 "즉 감염원에 노출될 수 있는 경로가 3군데가 있다는 것, 제주도민의 감염 위험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분기 이후 해외 직접 입국자가 증가할 경우 변이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7월 한 달 간 (새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행기간을 연속해서 적용하면 감염 전파 곡선이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지만, 7월에 방역을 완화하면 감염 추세는 정체 내지는 계속해서 상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정 센터장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임태복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배충식 KAIST 코로나대응 과학기술뉴딜사업단장,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도 참석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초기에는 의료인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협조로 방역 성과가 좋았으나, 이를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용하면서 과학에 기초한 전문가 판단과 행정실현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놓친 것들이 많다"며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역을 위해서는 과학에 기초하고 과학에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해기자

성평등한 문화 조성... 공공기관 '앞장'

성평등협·에너지공사 포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성평등협의회와 제주에너지공사는 29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공사 직원 및 성평등협의회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포럼'을 개최했다.

찾아가는 성평등포럼은 지난해 제주도 성평등정책관과 공공, 교육, 경찰, 언론 등 제주지역 26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만든 성평등협의회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로는 이날 처음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정재원 교수가 참석해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5C 리더십'을 주제로 양성평등 조직을 위한 성인지 리더십의 인식 전환에 대해 참석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영권 정부부지사는 "우리 사회



가 성평등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회의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며 "이에 제주도는 전국 최초 성평등정책관 신설, 공직자 대상 성인지 교육 의무화 등 성평등 정책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공사의 조직 문화 개선은 물론, 성별에 관계없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해기자

『周易』강좌

小學堂은 한문고전과 동양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래와 같이 유교경전「주역,하경반」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요일	시간	수업내용	교육기간
월 (매주)	오전 10시 ~ 11시 30분	『주역,하경』 -朱子 本義중심 수업-	45주

○ 교육시작: 2021년 7월 5일~
○ 「주역,기초강좌 4회」後, 「주역,하경」본 강좌 시작 함.
○ 수강료: 월 60,000원(월납기준) ※교재비는 별도(소학당 비자).
○ 장 소: 소학당한문학원(제주시 서사로 108, 2층)
○ 접수상담: [전화신청가능]
☎ 064-757-4561. H.P 010-3077-4561(원장)

※ 海山 '도인대상(무료) 四書二經 읽기' 특강반 진행 중

· 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7시~8시 10분.
· 과목: 『맹자』(下) (盡心章 下) 강독 중. ※다음 강독 과목: 『서경』, 『대학』, 『맹자』,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주역』(1986), 『眞山 文昭』(1997), 『大山 金碩』(2003-2004).
· 소학당한문학원(1989-현).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한문」, 「생활학원」, 강사(2011-현).
· 海山 '도인대상 (무료) 사서삼경읽기' 강사역임(2010-현).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생활역학성당지도사」, 「경서강독지도사」, 강사역임(2010-2017)

제주시교육청 등록 177호
소학당한문학원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상품 다수보유

서귀증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반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하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갈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 18-2003-20-08

010-2699-2355

국내개발 우수한 [신상품]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 황금향대조품종(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생산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대조품종 - 레아몬(레몬), 탐나(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능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2-7년생	하갈, 팔삭, 세미늘, 금금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가정원예(조경수)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증서와 농촌진흥청 통상시식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묘목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